

# 사설

## 재가불자의 역할

종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 등 4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그동안 우바이와 우바이, 즉 재가불자들은 종단외교라는 의무만 강요당했지 사실상 종단개혁과 발전에는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94년 개혁 때도 재가불자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으면서도 정작 종단개혁의 실질적인 작업에는 제외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운영위원회' 조직이다. 사찰운영위 구성은 종단개혁 작업 중 가장 주목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개 사찰에서 이를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사찰운영위를 만들자는 것은 사찰의 운영(재정을 포함해)을 주지 스님뿐 아니라 신도들도 함께 참여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스님들의 거부와 신도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야무야 된 것이다.

오계를 잘 지키기를 서원하며, 부지런히 베풀어 공덕을 닦아나가야 하며, 절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그 법을 잘 실천해야 한다. <잡아함경> 이 말씀처럼 계행에 철저하고 수행 정진에 힘쓰는 거룩한 스님들을 잘 공경하고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부처님 말씀에서 이따하는 스님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사명도 재가불자들의 것이다.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의 본분 사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될 뿐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종단의 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가 이에 걸맞은 전문인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불교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다변화되고 세분화되어가는 사회 구조에서 출가승단의 힘으로 포교 영역 도제양성 등 종단의 여러 과제가 잘 완수될 수는 없다고 본다. 신심으로 무장된 전문화된 재가불자들의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님들도 스님들만이 종단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재가불자들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마침 전국 신도회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3월에 새 회장을 선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앙신도회는 출범도 난산이었고 출범후에도 내홍이 계속돼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어 아쉬움을 주었다.

조계종의 새 집행부가 중앙신도회에도 자율성과 책임, 권한을 주어야 한다.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재가불자들은 초기 대승불교의 주역이었던 장로불교를 되새겨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불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 라는 네 바퀴가 균형을 맞춰 잘 굴러갈 것이다.

조계종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앞장섰던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 재가연대'가 지난 8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9대 도시를 돌며 '재가불자의 꿈 만들기'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가불자들의 활동방향과 조직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한다. 재가연대는 연속 토론회와 병행해 폭력성취해출운동과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을 핵심 개혁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그동안 대체적으로 기록에 머물던 재가불자들이 불교개혁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부처님께서는 재가불자로서 바르게 사는 도리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세속에 살면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며

# 조계종을 예산 긴축편성

## 기획실, 208억여원 총회에 제출

조계종은 금년 예산을 2백8억 6천여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1.8%가량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실제 살림살이의 규모인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11.6%를 축소 편성해 종단 운영의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총무원 기획실이 21일부터 열리는 제138회 임시중앙총회에 제출할 예산 계획서는 총무원정거의 전분야를 긴축 운영하는 방향에서 작성됐다. 절감 기조 속에 편성된 조계종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147억원에 비해 17억1천만원 가량 줄어 든 1백30억5천만원 규모 여기에 매년 적립되고 있는 시설특별회계에 산(청사건립, 중앙승가대이전, 신도교무금적립 예산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2백8억6천만원을 조금 웃돈다.

총무원 기획실은 "시설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이어서 사실상의 일반 지출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종단의

살림살이 규모인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난의 영향에 따른 긴축편성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을 토대로 조계종은 각 기관별로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도 수립했다.

총무부: 2천년 승려분한신고를 위한 준비예산과 보존문서 정비, 중앙신도회 보조금 등이 2억5천 6백만원 규모로 신규편성 됐다. 총무부는 올해동안 사찰의 관리감독 강화, 법인과 산하단체, 신도회 관리지원 강화, 직할교구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직할교구 특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무부: 총무기관의 재무회계는 체계화를 중점 업무로 꼽고 있다.

문화부: 문화부 전체 예산은 17%정도 감소 됐다. 이는 불미전이 시행되지 않는 해인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 불교문화재조사사업단 설립과 건축문화의 해 관련 사업, 중앙불교

학원 설립등 야심찬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사회부: IMF 영향에 따른 사회 구호사업은 계속 추진하지만 일회적인 사업들은 기금적 지양한다는 방침. 승가종합복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앙총회: 3억6천5백여만원 선에서 예산을 편성 작년 대비 8%감소 했다. 교육분과위원회의 교육기관 운영실태조사와 포교분과위원회의 해외포교실태조사 사업 등이 눈에 띈다.

교육원: 32억2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 보다 5.6%가 줄었다. 중점사업으로는 교육지원 및 평가를 위한 교육전문인력 관리 육성등의 교육 정책 수립과 조계종사 연구, 불교고문헌 실태조사 등.

포교원: 15억7백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20%의 큰 감소를 보였다. 직장직능 신행단체 조직화와 포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중점 사업으로 채택됐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일 신년교례회를 갖고 화합을 통한 불교발전을 다짐했다.

## "불교발전에 한뜻 모으자"

종단협 신년교례회...30일 신년 사업계획 수립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일 하림각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고 불교발전을 위한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다. 신년교례회에는 조계, 태고, 관음, 진각종 등 20여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종단협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회장으로 정식 추대하고 30일 총회를 갖기로 했다. 종단협은 총회에서 논의된 금년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일반사업은 각종전문위원회 활

성화, 북한통포지원사업, 불교사회복지정보 지원센터 개설사업, 각종 구호사업, 경제살리기 운동전개, 친목도모, 각종지원 등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해외교류사업으로는 한중일불교우호 교류위원회 설치 및 일본대표단 초청, 한국불교수행체험 중국대표단 초청, 식목사업(한중일 3국 각국서 실시) 등이 계획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 '총회의원 자격상실 확인' 소송

정화회의, 13일

정화개혁회의는 13일 월하스님과 정영스님(정화개혁회의 총무원장)을 원고로 중앙총회의원 81명이 98년11월14일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yryui@buddhopia.com)

정화개혁회의는 이에 앞서 9월 월하·정영·벽암스님 3인으로 총회의원 자격상실확인청구 소송을 냈으나 벽암스님이 법원에 원고가 아니라는 진정서를 냈에 따라 13일 이 소송을 취하했다. 위영란 기자

## '소송과 무관 이름 삭제' 벽암스님 서울지법에 진정

원로회의 부의장 벽암스님(신원사 조실)은 12일 서울지법에 진정서를 내고 정화개혁회의가 9일자로 소송한 총회의원 자격상실 확인소송과 관련해 "본인의 의사 없이 진행됐고, 소송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 의사가 없으므로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은 또 진정서에서 "본인은 지난해 12월5일 월하정영스님께 사임서를 이미 제출한바 있으나 신문지상에 공표도 하였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 "정화회의 해체까지 활동유지"

범불교연대회의

종단 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는 10일 제3차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결의사항인 정화개혁회의 해체와 조계종사태 주동자들의 중징계, 조계사의 완전 정상화 때까지 당분간 활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연대회는 이후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 새로운 사부대

중 공동체운동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연대회의의 개인 참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은자 기자

## 승가대 이사장에 고산스님

중앙승가대개혁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월주스님 후임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총장 지하스님의 사퇴서도 수리했다. 이은자 기자

## 금강호법단 10일 '해단'

조계종 금강호법단이 10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작년 12월 15일 결성됐던 금강호법단은 이날 해단식에서 "불교의 새로이 태생을 닦아 중생의 복전이 되자"는 내용의 '사부대중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총단장 세영스님(중앙총회의원)과 각교구 지단장에게 포상장을 수여했다. 임연태 기자



## 문화부장관, 고산스님 예방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새롭게 태어나려는 조계종의 노력에 정부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산스님은 "민족정신 개발에 불교와 정부가 함께 나서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 가려는 불자와 국민의 노력이 절실할 수록 나라와 세계는 평안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연태 기자(ytlm@buddhopia.com)

## "종단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자"

## 재가연대 전국순회 토론회

2월 공식 창립을 앞둔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8일과 9일 부산과 대구에서 진행된 지역순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조계종의 지속적인 개혁에 재가불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조계종 사태에 재가불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와 자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부산광역시신도회, 범불교연합회 등 부산지역 재가단체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지역 토론회에서 성재도부산불교교육원장은 "자신이 다니는 사찰과 스님에 대한 공경심은 있지만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다"면서 "사찰신도회와 불교단체 등도 종단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재가단체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대구지역 토론회에서는 "대구지역 단체들의 독자적인 토론회를 통해 조계종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판단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가연대는 16일 대전에서 지역순회토론회를 열었으며, 29일에는 전주에서 30일에는 광주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현대불교 100년사

현대만평



모두에게

737-8881

# 성명서

## 정부는 불교 탄압 및 훼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실로 수많은 정부의 종교편향정책과 이교도들의 훼손사건이 수시로 자행되어 왔다. 서울 본원정사 및 삼성암, 화계사, 범종사당 방화사건 영주 관음사 및 제주도 천불상등 훼손사건 이승만대통령의 대통령령발동, 및 군경이 사찰경내에 난입하였던 10.27법탄 및 조계사사건등의 종교 편향정책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계사 관세음보살상 파괴 및 광덕사 천불전 전소사건이 발생 하였는데 그중에서 화계사 관세음보살상 파괴는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중견간부직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강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은 불기 2542년 12월 31일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참된 자유민주 정의복지사회가 이루어 질때까지 호법을 위하여 지혜롭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 1. 대통령은 종교편향정책 및 불교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까지 자행된 수많은 불교탄압 및 훼손정책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 및 대책을 강구하라.

### 2. 정부는 이교도들을 시주한 사찰방화와 불상파괴의 훼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민족을 멸망시킬 동족상쟁의 종교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자멸행위는 세계평화를 가져와야할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 되어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

### 3. 우리는 정부관계부처장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행한 훼손행위의 그 책임을 묻는다.

유감스럽게도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간부직원에 의하여 자행되어진 화계사 관세음보살상 파괴행위자는 법밖에 처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사법처리한 후 관계부처에서는 원상복구하고 사과하라.

### 4. 앞으로 국립공원은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모색하라.

위 항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강북불교사암연합회 및 전불교도는 총 걸기하여 이 목적이 관철될때까지 매진할 것이며 동 회는 국립공원이 불교탄압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불기 2543년 1월 15일

## 강북구 불교사암 연합회 회장 차 동 광 (도선사)

고 문 정심사 지원, 고 문 보광사 정일, 고 문 운가사 수해, 자 문 화계사 성광, 자 문 삼성암 법보, 자 문 본원정사 원성, 부회장 무량사 무공, 부회장 소립정사 흥조, 총 무 서원사 서진, 총 무 서원사 행진, 감사 성도원 금산, 위 원 범종사 동훈, 위 원 보승사 혜정, 위 원 용덕사 경원, 위 원 법륜사 법성, 위 원 광명사 종준, 위 원 보성사 헤일, 위 원 송주사 확철, 위 원 오봉정사 용수, 위 원 향운사 법선